

데스크 시각

문화 광주가 꿈꾸는 대통령은?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전문기자

지난달 초 한 장의 사진이 SNS를 타고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 급속히 퍼졌다. 퇴임 후 자연인으로 돌아간 벼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미셸과 함께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깜짝 등장한 모습이었다. 사진 속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차림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였다. 물 빠진 청바지와 갈색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의 왼쪽 손에는 큼직한 소피백이 들려 있었다.

오바마 커플의 '미술관 사랑'은 지난해 8월 개봉된 '사우스사이드 위드 유'(Southside with you)에 탈탈하게 그려져 있다. 영화는 1989년 하버드 로스쿨 학생이었던 오바마가 시카고 대형 로펌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만난 변호사 미셸과의 첫 데이트 현장을 보여 준다. 로맨틱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주인공처럼 두 사람은 오전부터 사우스사이드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오바마와 미셸의 마음이 통한 장소는 '시카고와

트 오브 인스티튜트'. 이날 미셸은 오바마의 예술적 소양에 반했고, 마지막 데이트 코스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달콤한 컷 키스를 나눈다.

미술관 즐겨 찾은 오바마

골프공이나 농구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바마는 독서와 예술을 즐긴 '문화 대통령'이었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공연예술센터의 대통령 석(presidential box)을 자주 찾은 'VIP 손님'도 오바마 부부였다. 이와 관련된 일화도 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밤, 거실에 앉아 '케네디센터 아너스'(Kennedy Center Honors) 시상식을 TV로 지켜보던 미국 시청자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호트러진' 얼굴에 깜짝 놀랐다. 이날 열정적인 공연을 펼친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75)의 1968년 히트곡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클로즈업된 것이다.

오바마의 휴가철 도서 목록도 미국인들의 화제거리다. 매년 백악관이 공개하는 오바마가 보고 들은 책과 음악은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를 바꿨을 만큼 '핫'하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휴가철 플레이리스트다. 2년 전 오바마가 직접 고른 '여름 낮' '여름

밤'이란 제목의 리스트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니나 시몬부터 비욘세, 저스틴 티ंबर레이크와 같은 최신 팝스타들의 댄스곡까지 망라됐다. 대통령의 문화생활이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이벤트'로 비쳐지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오바마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려 했다며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문화를 '쟁긴' 지도자였다. 지난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했던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바다'이었다.

오페라 문턱 낮춘 미테랑

이런 상황인데도 미테랑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돈과는 거리가 먼(?) '그랑 프로젝트'(Grand Projet)를 추켜들었다. 파리 시내에 오르세미술관과 프랑수아 국립극의 위상을 높이는 중장기 문화 사업이었다. 그중에서도 오페라 극장의 문턱을 낮춘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당시 파리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팔레 가르니에 극장 입장료 1500프랑의 절반인 670프랑으로 서민들도 오페라를 관람하도록 한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지난 1989년 문을 연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에는 이후 주머니가 가벼운 파리지역의 발길이 이어졌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5월9일)이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연일 저마다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건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온통 경제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TV 토론이나 정책 설명회에서 쏟아지는 '말의 성찬' 가운데 문화 관련 공약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후보들의 문화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프로필도 빈약하다.

21세기는 문화가 곧 경쟁력이다 국력인 시대다. 그렇다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경제 대통령도 좋지만,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대통령은 또 어떠한가. MB와 박근혜 정부로부터 '출대반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명에 화북을 갈망하는 광주가 더 더욱 바라는 대통령 아닌가.

특히 우리는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그릇된 가치관이 예술의 창작과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체감한 바 있다. 바라건대, 이젠 '문화로 통하고 문화로 흥하는' 멋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러려면 누가 현실 가능한 정책이나 비전으로 문화를 살릴 책임자인지 그려내야 한다. 영혼 없는 '문화 육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문화광주 아니 문화 강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jhpark@kwangju.co.kr

은편칼럼

작은도서관은 인류 기억의 보고



심명섭 광주·전남 대한문학작가회 회장

자리를 스마트기기가 대신하고 있다. 책 읽는 고상한 문화민족이 어느 새 책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석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나'에서 길고 긴 기간을 활애하여 세 계일주를 해본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독서'였으며 선진국일수록 동네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즉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가지식 경쟁력을 나타내는 '독서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얼마전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보도된바 있다. 인도 보팔의 슬럼가에 사는 'Muskaan Ahirwar'라는 아홉살 소녀의 이야기다. 평소 책을 좋아하던 그녀는 방과 후가 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애 슬럼가를 배회하며 범죄에 노출된 동네 아이들과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생각 끝에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꾸며보기로 하고 인근에 있는 교육청 사무실에 들러 스물다섯권의 책을 기증받는다.

이 책들을 학교가 끝난 오후가 되면 매일 자신의 집 마당 한 칸에 새겨줄을 서가로 삼아 책을 끼워서 진열해 놓는다. 이 사실을 안 동네 아이들은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Muskaan Ahirwar'의 작은도서관으로 달린다. 자신이 직접 사서가 되어 빌려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대출도 해주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읽은 책에 대한 발표회도 벌인다. 심지어는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직접 책을 읽어주고, 글도 가르쳐 주는 역할까지도 도맡아 한다. 세계 각지의 독자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 작은도서관에 책을 기증하여 지금은 1000여권의 장서를 가진 작지만 큰 도서관이 되었다고 한다.

보팔의 작은도서관에서 독서에 열중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품성을 소유한 인격체가 될 것인가를 짐작해 보면 참으로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 어릴 적 독서를 통해 풍부한 정서함양은 물론 활기차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철강왕 엔드류 카네기도 어린 시절 마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와 철학 역사책 등을 즐겨 읽었던 것이 훗날 세계적인 철강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최고경영자 워렌 버핏, 마가렛 대처 수상 등 세계적인 갑부과 정치인들도 작은도서관을 이용하

여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은 인류 기억의 보고이고 호트러진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으로 그 문화적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 규모는 다를지라도 600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최근 광주의 대표적 복지타운인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노인전문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준비중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감이 있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책과 밀착해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탐독하는 담론문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했듯이 효령노인복지타운 작은도서관 역시 도서관으로써 구현해야할 역할과 사명은 실로 숭고하고 큰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라는 유기체처럼 계속 성장하여 읽고 보고 사색하는 활기찬 노년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품격있는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이다



조승한 광주시 서구 경제문화국장

8경(八景)으로 지칭된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유물 등은 문화수도 광주의 중심으로서의 면모를 확연히 보여준다. 육녀봉과 황새봉 정상들 사이에 두고 아련한 옛 이야기를 전해주는 금당산! 오래된 송림 사이에 숨어 있는 호수와, 그 호수에 기대어 있는 산등성이가 하늘과 맞닿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풍암호수! 그리고 극락강을 끼고 붉은 해님이 장관을 펼치는 서창들녘 낙조는 형용할 수 없는 감탄을 자아낸다.

습항각, 목암정사와 함께 보기 드문 정자원을 형성하고 있는 만귀정과 송학산 기슭에 자리한 청동기시대 지석묘, 그리고 살아숨쉬는 듯 생동감을 자아내는 운천사 마애여래좌상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서구의 불거리다. 또한, 무각사의 고즈넉한 정취와 오월루의 야경을 품에 안은 5·18기념공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양동시장 역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처럼 우리 서구지역에는 저마다 빛깔과 개성 있는 소리로 과거, 현재, 미래

의 일상을 소담스럽게 담아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 그리고 탄탄한 생활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의 비상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달동네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양3동 발산마을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술인촌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 공동체형 창조마을로 탈바꿈되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젊음의 공간'으로 일컬어지는 광천동 유·스퀘어는 청소년 문화촌 운영을 통해 교通的 허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인프라 구축과 지역민들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 또한 계속된다. 고즈넉한 한옥의 미를 자랑하는 서창향도문화마을은 관광명소와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낼 것이다.

16년 전통의 서구문화센터는 수준높은 강연과 전시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이며, 소리의 본 고장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빛고를 국악전수관은 전통국악의 산실로서 국악의 육성·발전 및 대중 사업을 통해 문화 공동체형 창조마을로 탈바꿈되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젊음의 공간'으로 일컬어지는 광천동 유·스퀘어는 청소년 문화촌 운영을 통해 교通的 허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격있는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이다. 일상에 녹아든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대표적 생태축제로 자리 잡은 서창들녘 역사축제와 도심 속 예술축제, 그리고 길거리 공연. 이런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주민들의 주도 속에 1년 365일 펼쳐진다면 머지않아 우리 서구는 불거리, 줄길 거리 가득한 명품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세월호에 수십 개 구멍 결국 돈 때문이었다

선체 훼손 논란에도 세월호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시도됐던 '선체 구멍 뚫기' 배수 작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자 세월호 육상거치 작업이 "구멍구 구식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와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fer·MT·이송장비) 24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MT를 기존 456대에서 480대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애초 6일이었던 세월호 육상 거치는 차질을 빚게 됐다.

MT 추가 투입은 선체에 구멍 21개를 뚫어 1400t 가량의 해수를 빼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배출량이 100분의 1 수준인 14~15t에 그친 데 따른 대안 성격의 조치다. 애초 해수부는 가로, 세로 30cm 크기 사각형 구멍을 뚫으려다 선체 훼손 우려가 커져 지자 지름 6~7cm 원형 구멍을 판 뒤 다시 일부 구멍 크기를 지름 15~20cm

까지 확대했다. 선체 내부에 있는 진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무게를 줄여 육상 거치를 수월하게 하려면 이 같은 작업 방식이 차질을 빚자 세월호 유족 등은 "처음부터 MT를 더 동원했더라면 천공(구멍 뚫기) 작업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MT 추가 투입 비용을 최종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MT를 기존 456대에서 480대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애초 6일이었던 세월호 육상 거치는 차질을 빚게 됐다.

MT 추가 투입은 선체에 구멍 21개를 뚫어 1400t 가량의 해수를 빼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배출량이 100분의 1 수준인 14~15t에 그친 데 따른 대안 성격의 조치다. 애초 해수부는 가로, 세로 30cm 크기 사각형 구멍을 뚫으려다 선체 훼손 우려가 커져 지자 지름 6~7cm 원형 구멍을 판 뒤 다시 일부 구멍 크기를 지름 15~20cm

광역시·도 의원 후원금 허용 부작용 없도록

지방의회의 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한 광역 지방의원 후원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에 대한 수용 의견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의원도 지방의원 간 의정 활동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결국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연간 기부·모금 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로 하고, 후원회는 선거일 이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전달했다. 결국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의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려 샌이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장은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정 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기본 취지와 달리 민원인과 이권 개입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선관위에서는 이미 지난해 8월 광역의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연에도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광역의원들은 스스로 인허가 대가성 후원회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부단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골프만큼 규칙이 까다로운 스포츠도 없다. 규칙을 어길 경우 가차 없이 벌타가 주어진다. 규칙이 까다롭다는 것은 그만큼 골퍼가 신사도 정신을 중시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프로골퍼들에게 벌타는 치명적이다. 가장 황당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J.LPGA 이도연레이디스 대회에서 발생했다. 우에하라 아야코는 1라운드를 마치고 무려 68벌타를 받았는데 로컬

게수 규정 위반으로 2벌타를 받아 3위로 내려앉았다. 골프백에 클럽은 14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캐디가 실수로 연습용 드라이버를 넣어 뒀으므로 한 개가 초과됐기 때문이다.

2010년 PGA 챔피언십에선 최종 라운드 18번 홀까지 선두를 달리던 더스틴 존슨(미국)이 벵커를 르프르 착각해 클럽을 지면엔 뒀다가 2벌타를 받아 우승을 놓쳤다.

옛게 유소연이 우승을 차지한 LPGA 메이저대회 ANA인스퍼레이션에서 렉시 톰프슨(미국)이 4벌타를 받은 사건이 화제다.

골프 벌타

받은 사건이 화제다. 톰프슨이 공을 잡아서 칠 수 있다"는 로컬룰을 정했으나 우에하라는 LPGA의 일반적인 룰에 따라 '한 클럽 길이 이내'로 공을 옮겨 놓고 플레이했다. 이런 방식으로 15개 홀에서 19번 공을 옮겨 쳤는데 '오소(誤所) 플레이'로 2벌타씩 38벌타를 받았고 15개 홀에서 스코어를 줄여 적은 것으로 간주돼 홀당 2벌타씩 30벌타를 추가로 받았다.

프슨은 30cm 파 퍼트를 남기고 마크를 했다가 정작 퍼팅할 때는 홀컵에서 2.5cm 가깝게 놓고 치다 오소플레이와 잘못된 스코어카드 제출로 2벌타씩을 받아 결국 우승을 놓쳐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시정자 제보로 다음 날 적발된 것을 두고 "시정자가 경기위원이 대선 안 된다"거나 "이중 처벌"이라는 등의 동정론이 일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골프에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장면이었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